

질풍노도표 못잡으면 '난파'...여야, 청년 표심잡기 '사생'

‘청년당’ 조직부터
‘비례대표 1번’까지
선거연령 확대 영향
‘반짝 관심’ 우려도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청년당 전진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여의도에 90년대생이 온다-86세대 기성정치에 도전하는 20대의 반란’ 행사에서 5호 영입인사로 맞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악수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청소년들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청소년의회·청년본부·청소년 특별위원회 정책협약식에서 ‘청소년 가로막는 국회장벽’을 허무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제21대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여야의 시선이 ‘청년’에게 향하고 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80여일 앞두고 기존의 당 전국청년위원회 조직을 ‘전국청년당’으로 승격시켰다. 전국청년당이 ‘당 안의 당’으로써 독립성과 지지성을 갖고, 청년 당원들이 각종 청년 관련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토록 한다는 취지이다.

민주당은 또한 전국청년당 내에 청소년 분과를 발족시키고, 청소년을 직접 분과위원으로 임명했다. 청소년 시절부터 정치에 참여해서, 미래 청년정치인들이 준비되고 활동할 수 있는 정치참여의 장을 열겠다는 것이다. 지난 19일에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전진대회도 개최했다.

‘세대교체’를 기치로 내건 청년들의 총선 출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38)은 최근 당내 총선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여선생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38)과 김민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행정관(38)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여 전 정책관은 전날(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꺼져가는 세대교체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청년층의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는 제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9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여의도에 90년대생이 온다’ 행사를 열고, 5명의 90년대생 청년들과 ‘90년대생이 바라본 여의도’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선 △혁신 △글로벌 △돌보기 △공감 △청년농부 등의 키워드를 가지고 토크도 진행했다.

황교안 대표는 “우리 당이 과거엔 청년들이 가까이하기 어려운 정당이었지만, 이제 변화해가고 있다”면서 “일회용 청년정책 아니라 지속가능한 청년 정책, 나이에 따라 말하는 당이 아니라 역량 따라 말하는 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인재영입도 이어졌다. 한국당은 5번째 영입인재로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37)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21대 국회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열어

야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원내 입성 확대를 노리고 있는 정의당은 비례대표 1번을 만35세 이하 청년에게 주기로 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최대 24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 이 중 20%에 해당하는 5석은 청년에게 할당하기로 한 것이다. 청년 명부로 지정된 순번은 1·2·11·12번, 그리고 21번 또는 22번이다.

여야가 청년층 유권자의 민심잡기에 나서려는 것은, 청년층이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트’(casting vote)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기존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던 청년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 한치 앞도 알 수 없게 된 만큼, 여야의 청년층 표심잡기 경쟁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청년층이 다른 계층보다 무당층 비율이 높은 스윙보터(swing voter·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한 사람)라는 점도 정치권이 공략에 나서려는 이유 중 하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0일 공개한 1월3주차 주간동향에서 19~29세의 무당층 비율은 16.6%로, 연령별 조사에서 가장 높게 나왔다.(YTN 의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은 4.8%.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여기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선거연령이 만18세 이하로 낮아진 것도 이 같은 흐름에 한몫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총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얻게 되는 ‘만 18세’ 유권자는 53만2000

여명이다. 이 중 ‘고3’ 학생은 5만여명 수준이다.

일각에선 정치권의 이 같은 청년층을 향한 관심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총선 승리를 위한 반짝 ‘생색내기’에 머물러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치권의 한 청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치권이 청년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같은 관심이 총선 승리를 위한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흔히들 정당에서 청년층을 위한다고 ‘수혜성’ 공약을 내놓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청년들이 이러한 공약만 바란다고 볼 수는 없다”며 “청년들도 정말 잘할 사람에게 투표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文의장 세습 공천 논란에 “국민 상식과 다른 결정 안한다”

불출마 설득 가능성도



문석균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씨 출마를 두고 불거진 ‘공천 세습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희상 의장 아들 공천 문제는 당도 매우 유의하

고 있다”며 “우리 당이 일반 상식과 다른 결정을 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본인이 직접 불출마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문석균씨 본인 동의를 진중하게 얻는 방법이 있다”고도 언급했다.

문 의장 아들 문석균씨는 현재 민주당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으며, 지난 11일 북콘서트를 열고 현재 문 의장 지역구인 의정부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문 의장이 출마하지 않기로 한 의정부갑은 현재 전략공천 지역으로

선정돼 있다.

‘공천 세습 논란’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최대 약재로 꼽히며 당내에서도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 등이 훼손된 상황에서 문 의장 아들의 공천 세습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당 지도부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터져 나왔다.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모 지역구에 자녀가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 첫 공개 비판이었다.

진중권, 홍준표 향해 “똥개냐? 집 앞에서 싸우겠다니”

與 영입 이탄희 전 판사 겨냥 “공개편지 쓰겠다…답장 믿는다”

진중권 전 중앙대 교수가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진 전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에 고향 출마 의지를 재차 전하면서 자신만 고향에 출마를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하는 홍 전 대표의 기사를 링크하면서 “똥개냐. 집 앞에서 싸우게”라고 비꼬았다.

이어 “대권후보였으면 그 무게를 스스로 가볍게 하지 말라”고 꼬집었다.

진 전 교수는 21일 별도의 글에서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인 이탄희 전 판사에 대해서도 “따로 공개편지를 쓰겠다”며 “꼭 답장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최근 사법농단 의혹 제보자인 이 전 판사가 민주당에 영입되자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란다”라고 비판했었다. 이 전 판사에게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요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뉴스1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호남신문 공익 캠페인

“ 딱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입니다 ”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파음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약속해주세요